

RESEARCH ARTICLE

A study on the value of social solidarity in early Buddhist scriptures: Focusing on interdependence and moral responsibility in the Dīgha Nikāya

Kim, Misuk (Ven. Ino)

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Joong-Ang Sangha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초기불교 경전에 나타난 사회연대 가치 연구: 『디가 니까야』의 상호의존성과 도덕적 책임의식을 중심으로

김미숙(인오)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Corresponding Author: Kim, Misuk (Ven. Ino) (dhbs2023@daum.net)



OPEN ACCESS

Citation: Kim, Misuk (Ven. Ino). A study on the value of social solidarity in early Buddhist scriptures: Focusing on interdependence and moral responsibility in the Dīgha Nikāya. Journal of Meditation based Psychological Counseling, 37, 45-57.

DOI: <https://doi.org/10.12972/mpca.2026.37.4>

Received: August 03, 2026

Revised: August 14, 2026

Accepted: August 21, 2026

Copyright: © 2026 Meditation based Psychological Counseling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value of social solidarity in the Dīgha Nikāya and explores its implications for contemporary Buddhist social welfare. Based on the concept of dependent origination (paṭiccasamuppāda), social solidarity is analyzed through two categories: interdependence and moral responsibility.

The findings show that the Dīgha Nikāya presents social solidarity not only as individual ethical practice but also as social practice directed toward others and the community. These values are closely related to human dignity, mutual care, and social integration, providing a foundation for relationship-centered Buddhist social welfare practice.

Keywords: Dīgha Nikāya, Social Solidarity, Interdependence, Moral Responsibility, Buddhist Social Welfare

I. 서론

현대사회는 경제적 성장과 과학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개인 간 단절, 사회적 불평등, 사회적 고립 등의 다양한 사회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개인주의적 가치 확산과 경쟁 중심의 사회구조는 공동체적 관계를 약화시키고 사회적 배제와 공동체 의식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Bauman(2001)은 현대사회의 개인화 과정이 사회적 관계의 불안정성과 공동 책임의 약화를 초래한다고 보았으며, Putnam(2000)은 사회 참여와 신뢰의 감소가 사회적 관계의 약화로 이어진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사회적 관계와 상호연결성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인간을 독립된 개인이 아니라 상호 연결된 관계적 존재로 이해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성원 간 연결성을 인식하고 공동의 책임을 실천하는 사회연대(social solidarity)의 가치가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다. Durkheim(1893)은 사회연대를 개인과 사회를 연결하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사회적 결속 원리로 설명하였다. 이후 사회연대 개념은 현대사회에서 상호 신뢰와 협력, 차이를 인정하는 공동체 형성의 가치로 확장되어 논의되고 있다(Zoll, 2008). 현대 사회복지에서도 사회연대는 사회구성원 간 상호 책임과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통합과 지속 가능한 공동체 형성을 위한 중요한 가치로 이해된다(이호성, 2004; 김문길, 2020). 즉 사회연대는 구성원 간 상호 관계성을 바탕으로 타인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고 책임 있는 실천을 통해 공동체의 안정과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초기불교의 연기(緣起, paṭiccasamuppāda) 사상은 이러한 사회연대 논의와 연결될 수 있다. 연기는 모든 존재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조건과 관계 속에서 상호 의존하며 성립한다는 관계적 세계관을 제시한다. 이는 인간을 관계적 존재로 이해하고 타인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 있는 삶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현대 사회복지의 사회연대 가치와 맥락을 같이한다.

초기불교 경전 가운데 『디가 니까야(Dīgha Nikāya)』는 개인의 수행과 해탈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 공동체 유지, 윤리적 책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보시(布施)를 통한 나눔, 비폭력적 관계 형성, 다양성 인정, 타인을 위한 책임 있는 실천은 공동체적 삶을 위한 사회연대 가치로 해석될 수 있다(전재성 역, 2011).

이에 본 연구는 『디가 니까야』에 나타난 사회연대 가치를 초기불교의 연기적 관점과 현대 불교사회복지적 관점에서 그 함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회연대의 분석 기준을 상호의존성과 도덕적 책임의식으로 설정하고, 상호의존성은 공생, 보시(나눔), 사회적 관계, 비폭력, 다양성 인정으로, 도덕적 책임의식은 공감을 위한 성찰, 타인을 위한 배려(이타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천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디가 니까야』에 나타난 사회연대 가치의 현대적 의미를 밝히고, 나아가 불교사회복지 실천에서 인간 존엄성 회복과 공동체적 관계 형성을 위한 이론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와 연구 분석틀

1. 선행연구

불교사회복지지는 불교의 사상과 가치를 현대 사회복지 이론 및 실천과 연결하여 인간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회복을 추구하는 학문 영역이다(조보각 외, 2019). 특히 자비(慈悲)와 연기(緣起) 사상은 인간을 관계적 존재로 이해하며, 현대 사회복지가 강조하는 인간 존엄성, 공동체성, 사회연대 가치와 연결된다.

기존 불교사회복지 연구에서는 불교의 자비(慈悲), 보시(布施), 연기(緣起) 사상을 중심으로 현대 사회복지 가치와의 연관성이 논의되어 왔다. 특히 자비와 보시는 타인의 고통에 대한 관심과 이타적 실천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의 돌봄과 상호지원 가치와 연결되며, 연기 사상은 인간을 독립된 존재가 아닌 상호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존재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관계 중심적 사회복지 관점과 맥락을 같이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불교 사상이 개인의 수행 차원을 넘어 인간 존엄성, 공동체 회복, 사회적 책임이라는 사회복지적 의미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초기불교 경전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적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조보각(1999)은 『아함경』에 나타난 복지적 의미를 고찰하며 초기불교 사상이 현대 사회복지 가치와 연결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고, 김경미(2015)는 보시와 자리아타 사상을 중심으로 타인을 위한 이타적 실천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최영신 외(2014)는 『상윳따 니까야』에 나타난 사회복지 가치를 인간 존엄성, 자발성, 기회균등, 사회연대로 구분하여 초기불교 경전 속 사회복지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또한 『앙굿따라 니까야』를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는 초기불교 사상의 사회복지 적용 가능성이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되었다. 조보각 외(2018)는 『앙굿따라 니까야』와 해결중심접근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초기불교 사상과 현대 사회복지 실천모델 간의 접점을 검토하였다. 이

후 안경훈(2023), 전양소(2023), 황희선(2023)은 각각 자발성, 기회균등, 사회연대의 가치 영역을 중심으로 『앙굿따라 니까야』에 나타난 사회복지적 의미를 고찰하였다.

최근 『디가 니까야』 관련 연구에서는 전양소(2026)가 기회균등 가치의 사회복지적 의미를 분석하였고, 안진영(2026)은 해결중심접근과의 관련성을 통해 초기불교 경전이 현대 사회복지 실천과 연결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초기불교 경전에 내재된 인간 존엄성, 자비, 보시, 사회연대 등의 사회복지적 가치를 밝히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주로 자비, 보시, 기회균등 등 개별 사회복지 가치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디가 니까야』의 관계윤리와 공동체적 실천을 사회연대의 구조적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연대의 핵심 요소인 상호의존성과 도덕적 책임의식을 분석 기준으로 설정하여 『디가 니까야』에 나타난 사회적 관계, 보시, 비폭력, 다양성 존중, 공감과 이타적 실천의 의미를 사회연대 가치로 고찰하고자 한다.

2. 연구 분석틀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사회연대 이론을 바탕으로 『디가 니까야』에 나타난 사회연대 가치를 상호의존성과 도덕적 책임의식이라는 두 가지 범주로 분석한다. 사회연대는 개인과 공동체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상호 연결된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가치라는 점에서(강수택, 2006), 초기불교의 연기적 관계성과 연결된다(조기룡, 2013).

이러한 관점에서 『디가 니까야』에 나타난 사회연대 가치를 상호의존성과 도덕적 책임의식이라는 두 가지 분석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1) 상호의존성

상호의존성은 인간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계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이해를 의미한다. 이는 모든 존재가 조건과 관계 속에서 성립한다는 초기불교의 연기(緣起) 사상과 연결된다.

본 연구에서는 『디가 니까야』에 나타난 상호의존성을 ① 공생을 위한 상호의존성, ② 보시(나눔)를 통한 상호의존성, ③ 사회적 관계에서의 상호의존성, ④ 비폭력을 통한 상호의존성, ⑤ 다양성을 인정한 상호의존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2) 도덕적 책임의식

도덕적 책임의식은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실천하려는 윤리적 태도를 의미한다. 이는 초기불교의 자비 사상과 현대 사회복지가 강조하는 인간 존엄성, 돌봄, 공동체 책임의 가치와 연결된다.

특히 자비와 사무량심은 자기중심적 관점을 넘어 타자의 행복을 고려하는 이타적 실천이라는 점에서 도덕적 책임의식의 근거가 된다(안신정, 2016). 또한 이러한 실천은 인간관계, 사회참여, 심리적 안정 등을 포함하는 삶의 질 향상과 연결될 수 있다(임근식, 2012).

본 연구에서는 『디가 니까야』에 나타난 도덕적 책임의식을 ① 공감을 위한 성찰, ② 타인을 위한 배려심(이타심), ③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천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표 1. 『디가 니까야』의 사회연대 가치 분석틀

사회연대의 가치	상호의존성	① 공생을 위한 상호의존성
		② 보시(나눔)를 통한 상호의존성
		③ 사회적 관계에서의 상호의존성
		④ 비폭력을 통한 상호의존성
		⑤ 다양성을 인정한 상호의존성
	도덕적 책임의식	① 공감을 위한 성찰
		② 타인을 위한 배려심(이타심)
		③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천

출처: 사회연대 이론과 초기불교 사회복지 가치 논의(최영신 외, 2014)를 바탕으로 재구성

본 연구에서는 『디가 니까야』의 개별 경전 가운데 연구 목적과 관련성이 높은 내용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를 상호의존성과 도덕적 책임의식의 분석 범주에 따라 해석한다.

III. 이론적 배경

1. 사회연대의 개념과 가치

1) 사회연대

사회연대(social solidarity)는 인간을 사회적 관계 속에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로 이해하고, 구성원 간 협력과 공동 책임을 통해 공동체를 유지하려는 가치이다. Durkheim(1893)은 사회연대를 개인과 사회를 연결하는 결속의 원리로 설명하였으며, 현대사회에서는 공동의 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공동체 형성을 위한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 강수택(2006)은 사회연대를 관계 속에서 ‘함께함’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보았으며, 이은주(2014)는 사회연대를 다양한 구성원이 상호의존적 관계 속에서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가치로 이해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연대는 구성원 간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기반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타인과 공동체에 대한 도덕적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며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가치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연대를 초기불교의 연기적 관계성과 연결하여 상호의존성과 도덕적 책임의식이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2) 상호의존성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은 인간이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다양한 관계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이해를 의미한다. 이는 구성원들이 상호 관계 속에서 협력과 참여를 통해 공동체를 유지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관계적 특성은 공생과 나눔, 비폭력적 공존,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다(이은주, 2014).

이러한 관점은 모든 존재가 조건과 관계 속에서 성립한다는 초기불교의 연기(緣起) 사상과 연결되며, 본 연구에서는 『디가 니까야』의 상호의존성을 공생, 보시(나눔), 사회적 관계, 비폭력, 다양성 인정의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3) 도덕적 책임의식

도덕적 책임의식(moral responsibility)은 자신의 행위가 타인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타인의 입장을 공감하며 배려와 이타적 실천을 통해 공동체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윤리적 태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태도는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행복을 증진하려는 초기불교의 자비(慈悲) 사상과 연결된다(안신정, 2016). 또한 인간관계와 사회참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은 사회복지의 핵심 가치와도 밀접하게 관련된다(임근식,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디가 니까야』에 나타난 도덕적 책임의식을 공감을 위한 성찰, 타인을 위한 배려심(이타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천의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2. 『디가 니까야』의 특성

『디가 니까야(Dīgha Nikāya)』는 팔리어 삼장(Tiṭṭaka) 가운데 경장(Sutta Piṭaka)에 포함되는 초기불교 경전으로, 긴 형식의 설법을 모은 문헌이다. ‘디가(Dīgha)’는 ‘길다’라는 의미를 가지며, 붓다와 제자 및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초기불교의 사상과 실천 원리를 보여준다(각목 역, 2005).

『디가 니까야』는 총 34개의 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핵심 교리와 수행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공동체 질서, 윤리적 책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특히 연기(緣起)에 근거한 상호 관계성, 자비와 보시에 기반한 실천을 통해 공동체적 삶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디가 니까야』는 개인의 해탈을 위한 수행 문헌을 넘어 관계 속에서 인간의 삶과 윤리적 실천 방향을 제시하는 경전으로 이해할 수 있다(이중표, 2019).

IV. 『디가 니까야』에 나타난 사회연대 가치 분석

1. 상호의존성

상호의존성은 인간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계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이는 모든 존재가 조건과 관계 속에서 성립한다는 초기불교의 연기(緣起) 사상과 연결되며, 현대 사회복지가 강조하는 관계성, 공동체성, 사회연대 가치와도 관련된다(최영신, 2015).

『디가 니까야』에서는 인간을 관계적 존재로 이해하고, 공동체적 삶을 유지하기 위한 보시(布施), 비폭력, 상호 책임, 다양성 인정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틀에 따라 『디가 니까야』에 나타난 상호의존성을 ① 공생을 위한 상호의존성, ② 보시(나눔)를 통한 상호의존성, ③ 사회적 관계에서의 상호의존성, ④ 비폭력을 통한 상호의존성, ⑤ 다양성을 인정한 상호의존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1) 공생을 위한 상호의존성

공생(共生, symbiosis)은 서로 다른 존재가 관계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으며 공동체적 삶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사회연대의 기본 원리인 상호의존성과 연결된다(김수진, 2021). 불교적 관점에서 공생은 모든 존재가 조건과 관계 속에서 성립한다는 연기(緣起) 사상에 기반하며, 자신과 타자를 상호 연결된 존재로 이해하는 생명 존중과 공동체적 책임의 의미를 가진다(조기룡, 2013).

『디가 니까야』에서 공생을 위한 상호의존성은 「대반열반경(D16)」과 「교계 싱갈라 경(D31)」을 중심으로 확인할 수 있다. 두 경은 인간이 가족과 사회, 공동체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상호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는 관계적 존재임을 보여준다.

대반열반경(D16)

나라가 쇠퇴하지 않는 법

1.4. “아난다여, 왓지들이 정기적으로 모이고 화합하여 일을 처리하며, 오래된 법을 존중하고 연장자를 공경하며, 공동체 구성원을 보호하는 한 왓지들은 번영할 것이고 쇠퇴란 기대할 수 없다.”

「대반열반경(D16)」에서 붓다는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조건으로 화합, 규범 존중, 구성원 간 보호와 책임을 제시한다. 이는 공동체 유지가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구성원 간 소통과 협력, 상호 책임의 관계 속에서 가능함을 보여준다.

특히 정기적인 모임과 화합된 의사결정은 공동체 구성원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상호의존적 관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가르침은 현대 사회복지가 강조하는 공동체 참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상호 돌봄의 가치와 연결된다.

「대반열반경(D16)」은 공동체의 안정과 발전이 구성원 간 협력과 책임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공생을 위한 상호의존성의 의미를 보여준다.

교계 싱갈라 경(D31)

(6) 육방을 감싸는 자

27-33. “장자의 아들이여, 자녀와 부모, 제자와 스승, 부부, 친구와 동료, 주인과 고용인, 재가자와 사문·바라문은 서로의 역할과 의무를 다하며 보호하고 돌본다. 이와 같이 여섯 방향은 감싸지게 되고 안전하게 된다.”

「교계 싱갈라 경(D31)」은 재가자의 삶을 여섯 방향의 관계로 설명하며,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요구되는 상호 의무와 책임을 제시한다. 이는 일방적인 보호나 의존이 아니라 각자의 역할을 인정하고 서로를 돌보는 상호적 관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관계 구조는 인간의 삶이 개별적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형성된다는 연기적 관점을 보여준다. 각 구성원이 책임을 실천할 때 신뢰와 협력이 형성되며 안정적인 공동체 유지가 가능해진다.

따라서 「교계 싱갈라 경(D31)」은 일상적 관계 속에서 상호 책임과 돌봄의 실천을 제시하며, 「대반열반경(D16)」과 함께 개인과 공동체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공생을 위한 상호의존성의 가치를 보여준다.

공생을 위한 상호의존성은 「사문과경(D2)」, 「꾸따단따 경(D5)」, 「마하고원다 경(D19)」, 「빠야시 경(D23)」, 「전륜성왕 사자

후경(D26)」, 「삼십이상경(D30)」, 「합송경(D33)」, 「십상경(D34)」 등에서도 확인된다.

2) 보시(나눔)를 통한 상호의존성

보시(布施, dāna)는 자비와 연민을 바탕으로 물질적·정신적 자원을 타인과 나누는 불교의 중요한 실천으로,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관계와 유대를 형성하는 윤리적 행위이다(김재영, 2010). 보시는 재시(財施), 법시(法施), 무외시(無畏施)를 포함하며, 개인의 공덕 형성을 넘어 타인의 삶을 지원하고 공동체 구성원 간 상호 책임과 협력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사회연대 가치와 연결된다.

『디가 니까야』에서도 보시는 개인적 소유를 넘어 공동체의 행복을 위한 실천으로 제시된다. 이에 「로힛짜 경(D12)」과 「마하수닷사나 경(D17)」을 중심으로 보시를 통한 상호의존성의 의미를 분석한다.

로힛짜 경(D12)

10-15. “로힛짜여, 살라와띠까에서 생산되는 것을 로힛짜 바라문이 혼자서 모두 누리고 남들에게 나누지 않는다면, 그는 자신을 의지해 살아가는 자들에게 장애를 주는 자이다. 장애를 주는 것은 그들의 손해를 바라는 것이며, 적대적인 마음을 확립하는 것이다.

또한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이 유익한 법을 증득한 뒤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다면, 그는 법을 통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장애를 주는 자이다. 장애를 주는 것은 타인의 이익을 방해하는 것이며 실패한 견해이다.”

「로힛짜 경(D12)」에서 붓다는 생산된 것을 독점하고 타인과 나누지 않는 것은 자신과 관계된 사람들의 이익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설명한다. 이는 자원의 독점이 개인적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의 삶과 관계되는 사회적 책임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또한 유익한 법을 얻고도 전하지 않는 태도를 비판함으로써 물질적 자원뿐 아니라 지혜와 가르침 역시 공동체 안에서 공유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로힛짜 경(D12)」은 나눔과 자원 공유가 공동체의 신뢰와 유대를 형성하는 보시를 통한 상호의존성의 가치임을 보여준다.

마하수닷사나 경(D17)

1.23. “아난다여, 마하수닷사나 왕은 연못을 조성하여 모든 사람에게 개방하고, 그곳에 보시를 베푸는 곳을 마련하였다. 먹을 것을 원하는 자에게는 음식을 베풀고, 마실 것을 원하는 자에게는 물을 베풀며, 옷·탈·갓·잠자리 등 필요한 것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였다.”

1.24. “아난다여, 그러자 바라문들과 장자들이 자신들의 재물을 가지고 와서 왕에게 바치고자 하였다. 왕은 자신이 가진 재물로 충분하다며 그것을 돌려주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소유물을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고자 하였다.”

「마하수닷사나 경(D17)」은 보시가 개인적 공덕을 넘어 공동체 구성원의 삶을 지원하는 실천임을 보여준다. 마하수닷사나 왕은 자신이 가진 자원을 독점하지 않고 필요한 사람들과 공유함으로써 공동체의 안정과 행복 증진을 실천하였다.

또한 왕의 보시는 일방적인 제공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보시가 주고받는 관계를 넘어 공동체 안에서 신뢰와 유대를 형성하는 상호의존적 실천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로힛짜 경(D12)」이 자원의 독점 문제를 지적한다면, 「마하수닷사나 경(D17)」은 보시를 통한 공동체 형성을 제시한다. 두 경은 보시가 개인적 선행을 넘어 공동체 유지와 관계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상호의존성의 가치임을 보여준다.

보시를 통한 상호의존성은 「꾸따단따 경(D5)」, 「대반열반경(D16)」, 「마하수닷사나 경(D17)」, 「삼십이상경(D30)」, 「합송경(D33)」 등에서도 확인된다.

3) 사회적 관계에서의 상호의존성

사회적 관계에서의 상호의존성은 인간이 가족과 공동체 등 다양한 관계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역할과 책임을 형성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개인의 삶이 독립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간 신뢰와 협력을 통해 형성된다는 점에서 초기불교의 연기적 관계성과 연결된다.

현대 사회복지에서도 인간 문제를 사회적 관계와 환경 속에서 이해하며, 관계 회복과 사회적 지지체계 형성을 중요한 가치로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계 싱갈라 경(D31)」과 「정신경(D29)」을 중심으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신뢰와 책임, 상호의존성의 의미를 분석한다.

교계 싱갈라 경(D31)

(5) 가슴을 나누는 네 가지 친구

21-25. “장자의 아들이여, 가슴을 나누는 친구라고 알아야 한다. 도움을 주는 친구, 즐거우나 괴로우나 한결같은 친구, 바른 것을 조언해 주는 친구, 연민하는 친구이다.

도움을 주는 친구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보호하고 의지처가 되어 주며, 한결같은 친구는 재난 속에서도 떠나지 않는다. 바른 것을 조언하는 친구는 사악함에서 멀어지게 하고 선(善)으로 이끌며, 연민하는 친구는 친구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고 어려움을 함께한다.”

「교계 싱갈라 경(D31)」은 인간관계가 일방적 의존이 아니라 상호 역할과 책임을 바탕으로 유지됨을 보여준다. 붓다가 제시한 진정한 친구는 어려움 속에서 도움을 주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며, 서로의 행복과 고통을 함께하는 관계적 존재이다.

이는 인간의 삶이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형성된다는 연기적 이해를 나타내며, 신뢰와 지지, 책임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관계에서의 상호의존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점은 현대 사회복지가 강조하는 관계 회복과 사회적 지지체계 형성의 가치와도 연결된다.

정신경(D29)

정등각이 선언한 법과 율

6-7. “쫄다여, 스승이 바르게 깨달은 자이고 법이 제대로 설해졌더라도, 제자가 그 법에 따라 닦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 법으로부터 퇴보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자에게 ‘그대의 스승이 가르치고 천명한 법대로 도를 닦으시오’라고 훈계하고 바르게 인도한다면, 인도하는 자와 인도받는 자 모두 큰 공덕을 쌓게 된다.

또한 제자가 법에 따라 도를 닦고 합당하게 실천하며 그 법을 수지한다면, 스승과 법과 제자 모두 칭송받아 마땅하다. 참으로 합당하게 도를 닦도록 격려하는 것은 바른 방법을 터득하도록 돕는 일이 된다.”

「정신경(D29)」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통해 사회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상호의존성을 보여준다. 올바른 가르침은 스승의 역할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수용과 실천이 함께 이루어질 때 그 가치가 실현된다.

또한 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조언하는 행위는 구성원 간 성장과 발전을 돕는 관계적 책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계 싱갈라 경(D31)」과 「정신경(D29)」은 인간관계가 신뢰와 책임을 기반으로 유지되며, 상호 성장과 지지를 통해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에서의 상호의존성을 보여준다.

사회적 관계에서의 상호의존성은 「대반열반경(D16)」, 「마하고윈다 경(D19)」, 「빠디까 경(D24)」, 「우뚝바리까 사자후경(D25)」 등에서도 확인된다.

4) 비폭력을 통한 상호의존성

비폭력은 타자에게 신체적·심리적 해를 가하지 않는 소극적 의미를 넘어, 모든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고 상호 존중의 관계를 형성하려는 윤리적 실천으로 이해할 수 있다. 초기불교에서 비폭력은 생명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한 불살생(不殺生)의 실천과 연결되며, 몸(身)·말(口)·마음(意)의 행위를 통해 타 존재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삶의 태도를 강조한다(김재영, 2010; 최영신 외, 2014). 이러한 비폭력적 실천은 개인의 윤리적 수행에 머무르지 않고, 타인과 공동체의 평화로운 관계 형성과 사회적 조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회연대의 상호의존적 가치로 이해될 수 있다.

『디가 니까야』에서 비폭력을 통한 상호의존성은 「꾸따단따 경(D5)」과 「삼십이상경(D3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두 경은 폭력과 배제가 아닌 생명 존중, 관계 회복, 공동체 안정을 위한 실천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사회연대 가치와 연결된다.

꾸따단따 경(D5)

11. “바라문이여, 궁중제관은 마하위지파 왕에게 말하였다. ‘폐하께서 도둑의 무리를 죽이거나 묶거나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방하여 처벌하려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바른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살아남은 자들이 다시 왕국을 해칠 것입니다.’

이에 왕은 농사와 목축을 하는 자들에게 씨앗과 음식을 제공하고, 상업을 하는 자들에게는 자금을 제공하였으며, 필요한 사람들에게 음식과 보수를 마련해 주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몰두하고 왕국을 해치지 않았으며, 땅은 안정되고 백성들은 기쁨을 누렸다.”

「꾸따단따 경(D5)」은 사회적 갈등을 폭력적 처벌이 아니라 구성원의 삶의 조건 개선을 통해 해결하는 방식을 제시한다. 이는 사회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만 보지 않고, 개인과 공동체가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관계적 관점을 보여준다.

「꾸따단따 경(D5)」은 단순히 해를 가하지 않는 비폭력을 넘어 타인의 삶을 보호하고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려는 적극적 실천을 강조한다. 이는 현대 사회복지가 지향하는 인간 존엄성, 사회적 책임, 공동체 회복의 가치와 연결된다.

삼십이상경(D30)

1.10. “비구들이여, 여래는 이전의 삶에서 인간으로 태어나 생명을 죽이는 것을 버리고 멀리 여의었다. 몽둥이와 칼을 내려놓고 겸손하고 자비로운 자가 되어 일체 생명의 이익을 위하고 연민하며 머물렀다.”

2.7. “비구들이여, 여래는 이전의 삶에서 손이나 막대기나 칼로써 중생들을 해치지 않았으며, 어떠한 폭력으로도 중생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

「삼십이상경(D30)」은 불살생(不殺生)의 실천을 통해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과 비폭력의 가치를 제시한다. 이는 단순히 해를 가하지 않는 것을 넘어, 타자의 고통을 줄이고 생명과의 관계 속에서 책임 있는 삶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꾸따단따 경(D5)」이 사회적 조건 개선을 통한 비폭력적 문제 해결을 제시한다면, 「삼십이상경(D30)」은 생명 존중과 자비의 실천을 강조한다. 두 경은 비폭력이 개인적 윤리를 넘어 타자와 공동체를 보호하는 상호의존성의 가치임을 보여준다.

비폭력을 통한 상호의존성은 「전륜성왕 사자후경(D26)」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5) 다양성을 인정한 상호의존성

현대사회는 다양한 가치와 배경을 가진 구성원이 함께 살아가는 다원화된 사회이며, 사회연대는 차이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인정과 공존의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Zoll(2008)은 현대사회의 연대를 동일성에 근거한 결합이 아니라 서로 다른 구성원들이 차이를 인정하고 협력하는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초기불교의 연기(緣起) 사상 역시 인간을 다양한 조건과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존재로 이해하며, 차이를 배척의 대상이 아닌 조화로운 관계 형성의 조건으로 바라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범망경(D1)」과 「마하수닷사나 경(D17)」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공존을 실현하는 상호의존성의 가치를 보여준다.

범망경(D1)

비방에 분노하거나 싫어하지 말라

1.5. “비구들이여, 남들이 나를 비방하고 법을 비방하고 승가를 비방하더라도 적대감을 가지거나 기분 나빠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을 내서는 안 된다. 만일 그대들이 분노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낸다면 그것은 그대들에게 장애가 된다.

남들이 비방한다면 사실이 아닌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해야 한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며,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바르게 설명해야 한다.”

「범망경(D1)」은 자신과 다른 견해나 비판을 접했을 때 분노와 적대감으로 대응하기보다 바른 이해와 소통을 통해 관계를 형성해야 함을 제시한다. 이는 차이를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상호 이해와 관계 형성의 과정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의미한다.

「범망경(D1)」은 다양한 가치와 관점을 가진 타자를 배척하지 않고 존중과 소통을 통해 공존하려는 상호의존성의 가치를 보여준다. 이는 현대 사회복지가 강조하는 포용과 사회통합의 가치와도 연결된다.

마하수닷사나 경(D17)

1.32. “아난다여, 마하수닷사나 왕은 담마 연못을 조성하여 모든 사람에게 개방하였다. 또한 보시를 베푸는 곳을 마련하여 음식을 원하는 자에게는 음식, 물을 원하는 자에게는 물, 필요한 것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였다.”

1.33. “아난다여, 담마 궁전과 담마 연못이 완성되자 마하수닷사나 왕은 사문에게는 사문으로서 존경을 표시하고, 바라문에게는 바라문으로서 존경을 표시하여 그들이 원하는 것을 충족하게 하였다.”

「마하수닷사나 경(D17)」은 서로 다른 삶의 조건과 위치를 가진 구성원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공동체적 관계를 보여준다. 마하수닷사나

왕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각자의 존재와 역할을 존중함으로써 차이를 인정하는 태도를 실천한다.

따라서 「범망경(D1)」이 서로 다른 견해에 대한 존중과 소통을 제시한다면, 「마하수닷사나 경(D17)」은 다양한 구성원을 포용하는 실천적 관계를 보여준다. 두 경은 차이를 배제하지 않고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다양성을 인정한 상호의존성의 가치를 나타낸다.

2. 도덕적 책임의식

타인을 위한 도덕적 책임의식은 자신의 행위가 타자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타인의 행복과 고통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로 실천하려는 윤리적 의식을 의미한다. 이는 타자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행동하는 적극적 실천을 포함한다.

초기불교에서는 인간을 상호 관계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로 이해하며, 이러한 관계적 관점은 자비(慈悲)를 바탕으로 타인을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을 실천하는 근거가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디가 니까야』에 나타난 도덕적 책임의식을 ① 공감을 위한 성찰, ② 타인을 위한 배려심(이타심), ③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천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1) 공감을 위한 성찰

공감은 타자의 정서와 상황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능력이며, 타인에 대한 관심과 친사회적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도덕적 태도로 이해된다(김태훈, 2015). 이는 타인의 고통을 인식하는 것을 넘어 관계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성찰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초기불교에서 공감은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緣起)의 이해와 자비(慈悲)를 바탕으로 하며, 타자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책임 있는 실천으로 확장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전기경(D14)」과 「대반열반경(D16)」은 개인의 성찰이 타자와 공동체를 위한 실천으로 이어지는 도덕적 책임의식을 시사한다.

대전기경(D14)

유행(遊行)을 허락하심

3.22. “비구들이여,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고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며, 세상을 연민하고 신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유행을 떠나라. 비구들이여, 법을 설하라. 시작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게 법을 설하고, 의미와 표현을 갖추어 청정한 범행을 드러내어라. 법을 들으면 중생들은 법에 대한 지혜를 얻을 것이다.”

「대전기경(D14)」은 개인의 수행과 깨달음이 자기 완성에 머무르지 않고 타자와 공동체를 위한 실천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는 자신의 깨달음을 타인의 이익과 행복으로 확장하려는 책임 있는 태도로서, 『디가 니까야』에 나타난 공감을 위한 성찰의 의미를 보여준다.

대반열반경(D16)

3.50. “비구들이여, 나는 이러한 법들을 최상의 지혜로 안 뒤 설하였으니, 그대들은 그것을 호지하고 받들어 행하며 닦아야 한다. 그래서 이 청정범행이 길이 전해지고 오래 머물게 해야 한다. 이것이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고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며, 세상을 연민하고 신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것이다.

... 중략 ...

그것은 네 가지 마음챙김의 확립[四念處], 네 가지 바른 노력[四正勤] ... 여덟 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八支聖道]이다.”

「대반열반경(D16)」은 자기성찰과 수행이 개인의 깨달음에 머무르지 않고 타자와 공동체의 행복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붓다는 수행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유지하는 것이 많은 사람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길임을 강조하였다. 이는 초기불교 수행이 개인적 완성에 한정되지 않고, 타자를 이해하고 공동체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삶으로 연결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전기경(D14)」과 「대반열반경(D16)」은 『디가 니까야』에서 공감을 위한 성찰이 타인의 행복을 위한 도덕적 책임의 실천으로 확장됨을 보여준다.

2) 타인을 위한 배려심(이타심)

배려(caring)는 타자의 상황과 필요를 이해하고, 그들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하려는 관계적 태도를 의미한다(박준영, 2012). 초기불교에서 이러한 배려와 이타적 책임은 모든 존재의 행복을 바라며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자비(慈悲)와 사무량심(四無量心)의 실천과 연결된다(안신정, 2016).

『디가 니까야』에서 타인을 위한 배려심은 개인적 선행을 넘어 타자의 행복과 삶을 고려하는 도덕적 책임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삼명경(D13)」과 「삼십이상경(D30)」은 보편적 자비와 타인의 행복을 위한 이타적 실천의 의미를 보여준다.

삼명경(D13)

네 가지 거룩한 마음가짐[四梵住]

76. “그는 자애[慈]가 함께한 마음으로 한 방향을 가득 채우면서 머문다. 그러럼 두 번째 방향을, 세 번째 방향을, 네 번째 방향을, 위로, 아래로, 주위로 모든 곳에서 모두를 자신처럼 여기고, 모든 세상을 무량하고 원한 없고 고통 없는 자애가 함께한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머문다.”

77. “다시 와셋타여, 비구는 연민[悲]이 함께한 마음으로 … 같이 기뻐함[喜]이 함께한 마음으로 … 평온[捨]이 함께한 마음으로 모든 세상을 가득 채우고 머문다.”

「삼명경(D13)」은 사무량심(四無量心)을 통해 모든 존재를 향한 배려와 이타적 책임의 태도를 제시한다. 자(慈)·비(悲)·희(喜)·사(捨)는 특정 대상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존재의 행복을 지향하는 보편적 자비의 실천으로 나타난다.

「삼명경(D13)」의 사무량심은 타인의 행복과 고통에 관심을 가지고 책임 있게 행동하려는 배려심(이타심)의 의미를 보여주며, 이는 관계 속에서 서로의 삶을 돌보는 사회연대 가치와 연결된다.

삼십이상경(D30)

2.4. “비구들이여, 여래는 이전의 삶에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들의 믿음이 증장하기를, 계가 증장하기를, 배움이 증장하기를, 베풀이 증장하기를, 법과 통찰지가 증장하기를 바라며, 재물과 곡식, 친척과 친구들이 증장하기를’이라고 많은 사람들의 이로움과 복리, 편안함을 바라는 자였다.”

2.5. “그는 이러한 선한 행위의 결과로 모든 성취를 잃지 않게 된다. … 중략 …”

「삼십이상경(D30)」은 타인의 행복과 복리를 위한 이타적 책임의 의미를 보여준다. 여래가 많은 사람의 성장과 안정을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갔다는 내용은 자신의 이익을 넘어 타자의 행복을 고려하는 배려의 실천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삼명경(D13)」이 모든 존재를 향한 보편적 자비를 제시한다면, 「삼십이상경(D30)」은 타자의 성장과 행복을 위한 구체적 책임을 보여준다. 두 경은 타인을 위한 배려심(이타심)이 개인적 덕목을 넘어 공동체 구성원의 행복을 함께 추구하는 사회연대 가치임을 나타낸다.

타인을 위한 배려심은 「대반열반경(D16)」, 「마하수닷사나 경(D17)」, 「마하고원다 경(D19)」, 「우둠바리카 사자후경(D25)」, 「합송경(D33)」 등에서도 확인된다.

3)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천은 개인의 행복을 넘어 타인과 공동체의 안녕을 고려하고, 보다 나은 삶의 조건을 형성하려는 책임 있는 행동을 의미한다. 삶의 질은 단순히 물질적·경제적 조건에 한정되지 않고 개인의 심리적 만족, 사회적 관계, 생활환경 등 다양한 요소가 상호작용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이해된다(임근식, 2012).

『디가 니까야』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천은 개인의 윤리적 수행이 타인의 행복과 공동체 안정으로 확장되는 도덕적 책임의 과정으로 나타난다. 이에 「사문과경(D2)」과 「자나와사바 경(D18)」을 중심으로 개인의 수행과 지혜가 공동체의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되는 의미를 분석한다.

사문과경(D2)

43. “대왕이여, 비구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버리고 일체 생명의 이익을 위하고 연민하며 머뭙니다.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것을 버리고 청정하게 머뭙니다. 이것이 이 비구의 계입니다.”
44. “그는 거짓말과 중상모략하는 말을 버리고, 화합을 즐기며 화합하게 하는 말을 합니다. 또한 부드럽고 의미가 분명하며 이익을 줄 수 있는 말을 합니다. 이것이 이 비구의 계입니다.”
45. “이와 같이 계를 구족한 비구는 계로써 잘 단속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보지 않으며, 성스러운 계의 조목[戒蘊]을 구족하여 안으로 비난받지 않는 행복을 경험합니다.”

「사문과경(D2)」은 계(戒)의 실천을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윤리적 책임의 의미를 보여준다. 생명존중, 정직한 행위, 화합을 이루는 언어는 개인의 도덕적 완성을 넘어 타인과의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기반이 된다.

「사문과경(D2)」에서 제시하는 윤리적 실천은 자신의 행위가 타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과정이며, 공동체의 안정과 행복을 증진하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천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나와사바 경(D18)

28. “세존이시여, 범천 사냥꾸마라는 ‘과거에도 이러한 훌륭한 스승이 계셨고, 훌륭한 법을 설하였으며, 특별함을 증득하는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미래에도 이러한 스승이 계실 것이고, 이러한 법을 설할 것입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29. “웻사와나 대천왕은 범천 사냥꾸마라의 말을 듣고 자신의 회중에게 알렸으며, 자나와사바 약가는 이를 세존께 아뢰었다. 세존께서는 이를 아난다 존자에게 알려주셨고, 아난다 존자는 비구와 비구니, 청신사와 청신녀들에게 전하였다. 이렇게 해서 청정범행은 유지되고 번창하며 널리 퍼져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었다.”

「자나와사바 경(D18)」은 바른 가르침의 공유와 전승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의 삶이 향상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法)은 개인에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전달되고 실천될 때 구성원의 성장과 변화로 이어진다. 이러한 법의 전승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타인의 올바른 삶을 돕는 책임 있는 실천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사문과경(D2)」이 계(戒)의 실천을 통한 윤리적 책임을 제시한다면, 「자나와사바 경(D18)」은 지혜와 가치의 공유를 통한 공동체적 성장을 보여준다. 두 경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천이 개인의 수행을 넘어 타자와 공동체를 위한 사회연대 가치로 확장됨을 나타낸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천은 「범망경(D1)」 등에서도 확인된다.

V. 결론

현대사회는 개인화, 사회적 고립, 공동체적 관계 약화 등으로 인해 사회연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사회연대는 인간을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로 이해하고, 공동체적 책임과 협력을 실천하는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디가 니까야』에 나타난 사회연대 가치를 고찰하기 위해 상호의존성과 도덕적 책임의식이라는 두 가지 분석 기준을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초기불교의 가르침이 개인의 수행과 윤리적 완성을 넘어 타자와 공동체를 위한 사회적 실천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첫째, 『디가 니까야』에 나타난 상호의존성은 연기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공생, 보시(나눔), 사회적 관계, 비폭력, 다양성 인정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는 인간이 관계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보여주며, 현대 사회복지가 강조하는 공동체 회복과 관계 중심적 실천 가치와 연결된다.

둘째, 도덕적 책임의식은 타인의 고통과 필요를 이해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려는 윤리적 태도로 나타났다. 공감을 위한 성찰, 타인을 위한 배려심(이타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천은 자비를 기반으로 개인적 수행이 타인과 공동체의 행복을 위한 사회적 실천으로 확장됨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기존 불교사회복지 연구가 주로 자비, 보시 등 개별 가치 분석에 초점을 두었던 것과 달리, 『디가 니까야』에 나타난 사회연대 가치를 상호의존성과 도덕적 책임의식이라는 분석 기준을 통해 체계적으로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초기불교의 연기적 관계성과 자비에 기반한 윤리적 실천이 현대 사회복지가 강조하는 인간 존엄성, 관계 회복, 사회통합의 가치와 연결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디가 니까야』의 사회연대 가치는 명상상담 및 사회복지 실천 영역에서도 활용 가능성을 가진다. 연기적 관계 이해는 자신과 타

자, 공동체와의 연결성을 자각하도록 하며, 공감과 배려에 기반한 도덕적 책임의식은 관계 회복과 공동체적 치유를 위한 실천적 기반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디가 니까야』를 중심으로 사회연대 가치를 고찰하였기 때문에 초기불교 전체 경전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맛지마 니까야』, 『상윳따 니까야』 등 다른 초기경전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초기불교 사회연대 가치의 현대 사회복지 및 명상상담 적용 가능성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국문초록

본 연구는 초기불교 경전인 『디가 니까야』에 나타난 사회연대의 가치를 고찰하고, 현대 불교사회복지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대사회는 개인화의 심화, 사회적 고립, 공동체적 관계 약화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간을 관계적 존재로 이해하고 공동의 책임을 실천하는 사회연대 가치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초기불교의 연기(緣起) 사상을 바탕으로 『디가 니까야』에 나타난 사회연대 가치를 상호의존성과 도덕적 책임의식이라는 두 가지 분석 기준을 통해 고찰하였다. 상호의존성은 공생, 보시(나눔), 사회적 관계, 비폭력, 다양성 인정의 측면에서 분석하였으며, 도덕적 책임의식은 공감을 위한 성찰, 타인을 위한 배려심(이타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천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디가 니까야』의 사회연대 가치는 개인의 수행과 윤리적 완성에 머무르지 않고 타자와 공동체를 위한 사회적 실천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상호의존성은 공동체 형성, 나눔, 관계 회복, 포용의 가치로 나타났으며, 도덕적 책임의식은 자비와 성찰을 기반으로 타인의 행복과 공동체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실천적 가치로 나타났다.

따라서 『디가 니까야』에 나타난 사회연대 가치는 현대 사회복지가 지향하는 인간 존엄성, 상호 돌봄, 사회통합과 연결될 수 있으며, 관계 중심적 불교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디가 니까야』, 사회연대, 상호의존성, 도덕적 책임의식, 불교사회복지

참고문헌

- 각목 역(2005). 디가 니까야(전 3권). 초기불전연구원.
- 강수택(2006). 사회연대 개념의 역사적 전개와 이론적 함의. 사회와 이론, 9, 211-249.
- 김경미(2015). 아함경에 내재된 사회복지사상과 실천사례. 동아시아불교문화, 24, 427-472.
- 김문길(2020). 사회통합 실태 및 인식의 변화와 결정 요인 그리고 정책 함의. 보건복지포럼, 280, 49-61.
- 김수진(2021). 공생(共生)에 관한 표현 연구: 연구자의 작품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영(2010). 초기불교의 사회적 실천에 관한 연구: 대중적·교리적 기초와 전개 과정을 중심으로. 동방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태훈(2015). 공감(Empathy)에 관한 연구. 초등도덕교육, 47, 1-28.
- 박준영(2012). 권정생 단편동화에 내포된 배려적 사고 분석.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경훈(2023). 『앙굿따라 니까야』에 나타난 자발성 가치 연구.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신정(2016). 사무랑십의 가치 재발견과 체화프로그램 개발.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진영(2026). 『디가 니까야』와 해결중심접근의 사회복지적 함의 연구.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주(2014). 프랑스 복지정책의 사회연대개념과 실천적 함의. 보건사회연구, 34(1), 74-104.
- 이중표(2019). 정선 디가니까야. 불광출판사.
- 이호성(2004). 외환위기 후 사회공동체의 결속력 약화와 사회문제. 담론 201, 6(2), 71-79.
- 임근식(2012). 강원지역 주민의 삶의 질 인식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10(1), 47-89.
- 전양소(2023). 『앙굿따라 니까야』에 나타난 기회균등 가치 연구.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양소(2026). 『디가 니까야』에 나타난 기회균등의 사회복지적 의미.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재성 역(2011). 디가 니까야(전 3권). 한국빠알리성전협회.
- 조기룡(2013). 한국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불교교단의 역할: 대한불교조계종의 불교사회복지를 중심으로. 대각사상, 19, 177-206.
- 조보각(1999). 아함경에 내재된 사회복지 이념. 중앙승가대학교 교수논문집, 1, 337-367.
- 조보각, 최영신, 유성운, 연이섬, 김도우(2018). 초기경전과 해결중심접근. 양성원.
- 조보각, 최영신, 연이섬, 이자운, 마혜등, 김향림, 김도암(2019). 상윳따 니까야와 사회복지의 가치. 양성원.
- 최영신(2015). 초기불교경전 『상윳따 니까야』에 나타난 기회균등의 가치에 관한 일고찰. 인문사회과학연구, 16(2), 277-310.
- 최영신, 조보각, 김도암, 김상남, 연이섬, 이자운, 마혜등(2014). 불교사회복지연구에서 초기불교경전 『상윳따 니까야』의 사회복지 가치가 가진 의미. 비판사회정책, 44, 143-201.
- 황희선(2023). 초기불교경전 『앙굿따라 니까야』의 사회복지 가치가 지닌 의미: 사회연대의 가치를 중심으로.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uman, Z. (2001). The Individualized Society. Polity Press.
- Durkheim, E. (1893). De la division du travail social. Alcan.
- Putnam, R. D.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Simon & Schuster.
- Zoll, R. (2008). What Ever Happened to Solidarity? In Search of New Forms of Solidarity. Suhrkamp.